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맡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11. 목회일기 작성

목장모임 말씀 나눔시

(10월8일 주일설교/에베소서1:1-6중 발췌/하늘 복 받으세요)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시켜달라고 해서 사도 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자주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운명적으로 정해놓고 계시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추진해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써 드러지고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어떤 사역을 맡으셨든지 이 의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쓰시기로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나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목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자목녀님이 귀한 일 하시는데 우리라도 자리 채워드리며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목장을 나갑니다. 물론 원팀으로서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보고서 하는 사역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뛰어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명감을 갖아야 합니다. 목자목녀만이 사명감을 갖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도 사명감을 갖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장생활을 하는 것도,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게 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빠르게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 무엇 때문에 바쁘시길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주를 위해서 한번 바빠 보고, 주를 위해서 한번 피곤해 보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늘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2절에서는 “은혜와 평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화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늘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데, 보통 언제 찬송하게 되냐면 복을 받을 때 찬송하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복인 하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6절)

이 엄청난 하늘 복을 받은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늘 복을 받은 우리가 예수는 안 믿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하늘 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제인지 나눠 봅시다.



목회자 칼럼

끼리끼리 & 두루두루

예전에 칼럼을 쓰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끼리끼리 놓시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친척들과 추석 명절을 보냈지만 사실 그 어떤 친척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에 반해 목장식구들과의 관계는 거의 가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아휴~~ 우리 교회는 여길 가도 목장식구, 저길 가도 목장식구, 자기들만 끼리끼리 노는 것, 그게 문제야!”라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피상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리스천의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안보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러다가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소식이나 기도제목을 물어보고, 일주일 후에 만나면 일주일 동안에 그 문제 가지고 나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고, 이런 깊은 관계가 있는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귀면서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시간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 목장식구들끼리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질이 외향적이라서 나는 목장식구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연합교회에서 제공하는 삶공부나 교회의 여러 사역팀이나 또는 행사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했던 실만한물가라든지 이번 21일에 할 목장연합 가을운동회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행사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땀을 흘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장을 뛰어 넘어서 좋은 분들과 사귄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평소에 관계를 갖고 있는 VIP들을 초대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영혼구원하여 제자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미 믿는 분들이 더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인력과 노력과 물질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한교회 with VIPs 목장연합 가을운동회도 이같은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데 아름답게 드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 그리고 두루두루!! -손목사-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일일특새 & 공동체금식

10월 일일특새 및 공동체 금식이 내일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전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제목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필경대에 있는 공동체금식 한끼 구제헌금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위드 VIPs 목장연합 가을 운동회

- 1)일시: 10월 21일(토) 오전10시
- 2)장소: 세종 연동중학교(세종 내판로 10-13)
- 3)신청: 목자님들은 전달해드린 양식(네이버폼)으로 오늘까지 참여인원들을 파악해주시기 바라고, 목장을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역자 혹은 새가족담당 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4)이동: 자차를 이용하실 때 최대한 카풀섬감을 해주시고, 포에버 및 싱글 등 차량운행이 필요한 분들은 당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 5)VIP들도 초대해서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3. 삶공부

이번 주 생명의 삶 화요 오전반은 노회 관계로 목요일 오전 같은 시간으로 옮겨 진행합니다.

4. 세대전노회 정기노회

제143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전새미래교회에서 있습니다.

5.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시찰연합예배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연합예배가 10월29일 오후7: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6. 제1차 단봉선(단기봉사선교)을 위한 후원행사

2024년 1월 싱글 중심으로 다녀오게 될 필리핀 단봉선을 위한 후원행사가 다음 주일에 있으니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호박고구마판매)

7. <말씀보화찾기> 성경 통독 37주차

- 1)히브리서 7장 ~ 요한계시록 2장까지
- 2)말씀수첩 구입은 1층 교역자실에서.

8. 담임목사 목장탐방

이번 주는 신관중앙목장(화/정효섭 목자). 필리핀까비떼목장(토/김경애 목자) 탐방이 있습니다.

9. 수원 한길교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금~주일)

최선진집사님(태국만나목장)과 성지영집사님(에과도로목장)께서 다녀오십니다.

10. 교우동정

- 1)결혼: 장재영·김명진 결혼예배/ 10월9일(월) 오후12시,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홀
- 2)장례: 송마선집사(신관중앙목장) 부친 별세,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 3)입원: 김성욱집사(대명목장) 대전센텀병원.
- 4)교역자휴가: 금주 박희락 목사.

영구암송

에베소서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